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6월 5일 수요일 (주간) 제 372 호

신제품 전지칼라연등 - 안전성 · 경제성 · 편리성 - 허가, 관음, 지장, 호돈, 연꽃 등 佛心院 서울조계사入口 상운종합1층 ☎ 02)725-2050(代)

법석 조대 **우룡 스님** 울산 학성선원 조실

"내 가족을 부처님처럼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불이고 부처님 모시는 일입니다."

"원력 자체가 대우주의 기운이요 본바탕입니다. 그러니까 원이 흔들리지 않고 실천이 투철하면 항상 부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대우주와 내가 둘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2002 월드컵 개막…상생의 메시지 전세계에

세계 60억 인구의 축제 2002 월드컵의 막이 올랐다. 5월 31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동방으로부터'(From the East)라는 큰 주제 아래 펼쳐진 개막식은 환영, 소통, 어울림, 나눔이라는 4개의 작은 주제로 첨단 정보기술과 동양의 정서가 어우러진 상생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했다. 사진은 30일 상암월드컵스타디움 옆 평화공원에서 '세계인의 어깨동무'라는 주제로 열린 월드컵 전야제 첫째마당 '설렘'. 출연자들이 박찬수 목조각장이 만든 35개의 대형 목어(木魚)소리에 맞춰 무고춤을 추는 모습.

'승무'의 시인 조지훈 6월의 문화인물로

'승무'의 시인 조지훈(1920~1968)이 문화관광부 선정 '6월의 문화인물'로 뽑혔다.

조지훈은 동국대학교 전신인 혜화전문학교에 재학 중 정지용의 추천을 받아 〈문장〉지로 등단,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청록파'로 불린다. 혜화전문학교 졸업 뒤 월정사 강원의 외전강사(外典講師)로 있으면서 당시 상원사에 머물던 방한암 스님에게 불교경전과 참선을 배웠고, 동국역경원 초기 역경위원을 지냈다. 21일에는 영양 문화체육센터에서 그의 생애를 다룬 연극 '나빌레라'가 공연되며 22일 같은 장소에서 '지훈문학 강연회'가 열린다. 권형진 기자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해외 2세 뿌리찾기 수련회

'뿌리 없는 나무 없고, 근원 없는 강물 없다.'

자신이 태어난 곳에 대한 향수는 인연법(因緣法)에 의해서 태어나서 머물고, 변화하다 사라지는 인간의 본능적인 정서이리라. 그래서인지, 해외 한인 청소년들과 한국에 관심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국토순례나 언어교육,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이나 대학, 대형 개신교회나 민간단체들에 의해 최근 속속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불교계는 내국인 청소년 대상의 수련프로그램은 있지만, 해외교포 2세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 사찰이 해외 교포2세를 위한 전통문화체험 수련회를, 그것도 무료로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삼보사(주지 지원)는 7월23일부터 31일까지 '2002년 재외교포 청소년을 위한 한민족 전통문화체험 수련회'를 경기도 양주군 백석읍에 새로 지은 도리산 육지장사 한국불교국제수련원(400여명 수용규모)에서 개최한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의 해외한인 청소년 및 외국인으로 12~15세까지의 중학생들 45~50명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의 경비를 대부분 삼보사에서 마련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방식은 단순한 소개차원이 아닌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현장학습 위주로 편성됐다. 참가학생들은 예절과 다도를 배우는 문화교실과 고궁 및 박물관을 관람하며 이틀을 보낸 다음 용인 민속촌, 수원 용주사 효수련원을 방문한다. 이어 백제문화(백양사, 화엄사, 금산사 답사 포함), 신라문화(해인사, 불국사, 석굴암, 경주답사 포함) 탐방이 계속되며 7일과 8일째는 안동 하회마을, 도산서원, 부석사 답사 등이 포함된 유교문화권 탐방도 하게 된다. 숙식은 사찰이나 콘도, 민박 등 다양하게 제공된다.

삼보사 주지 지원스님은 "교포 2, 3세들이 우리민족문화에 대한 이해가 커진다면 외국에서 사는 청소년들인 만큼 이들이 자라 우리문화 포교사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불교계에서도 청소년수련원이 속속 건립되는 추세인만큼 종단차원의 해외 청소년 포교대책 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재경(취재1부 차장)

불교관련 내용 일부 오류 '여전'

파라미타 초 중 고 교과서 조사… 19항목 잘못 기술

종단차원 상설 연구기구 필요

올해부터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 초 · 중 · 고교 교과서의 불교관련 내용 중 총 19항목이 잘못 서술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6차 과정 대비 11건이 누락됐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소장 김형중)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조사하고 1일 발표한 제7차 교육과정 초 · 중 · 고 교과서 불교 교리 신앙내용 오류 및 종교편향서술 실태분석에 따르면, 교리 · 신앙 서술 12건, 종교편향 7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라미타는 조계종 포교원을 통해 이의 시정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난 2000년 조계종포교원 교과서연구위원회가 지적한 제6차 교육과정 불교관련 편향 · 왜곡사례 총39항목 가운데, 기독교 청소년과 불교신자 어머니와 갈등 등 절반가량이 시정 또는 삭제되면서 불교내용은 11건이 줄고, 개신교 · 천주교 관련 내용은 늘어나는 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 교과서의 경우, 학습자 인지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원효의 화쟁사상, 열반, 8정도 등 불교전문용어가 충분한 설명 없이 인용된 점이나 중국 법장의 저술인 〈대승기신론소〉를 원효스님의 저술로 소개한 사진자료의 오류, 도덕 1.2에 똑같은 원효대사의 영정을 중복 수록한 것은 불교에 대한 몰이해와 편집상 불성실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어 교과서의 경우에는 고전문학의 주류를 이루는 불교문학이 대폭 줄었다. 고작 한용운의 시 '나룻배와 행인'과 불경 '법구비유경 쌍요품'만이 수록돼, 기존 6차 과정에 '제망매가(향가, 월명사)' 등 11편이던 불교문학작품이 2편으로 줄었다.

청소년 문화연구소 소장 김형중 교법사는 "교과서 편찬위원회 산하에 각 종교자문기관의 설치는 물론, 불교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할 종단 차원의 상설 연구기구가 시급히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김창우 기자 n-gan@buddhapia.com

고등군사법 판결

김태복 장군 뇌물죄 못벗어

형 선고 유예 · 2천만원 추징 … "대법 상고"

군 법당 건립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김태복 장군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 재판부(재판장 남재준)는 5월 31일 국방부 고등재판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뇌물수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다. 2천만원을 추징하고 형은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 김태복 장군이 제시한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 군 검찰의 출입일지의 조작 가능성이 없으며, 99년 7월 7일 당시 김 장군이 공관에 있지 않았다는 증인들의 증언은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빙성을 얻기 힘들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태복 장군은 재판이 끝난 직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명백하게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재판부는 진실을 왜곡시키고 다시 한번 추정판결을 내렸다"면서 "대법원에 재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휴가

1. 불자님은 올여름 휴가 때 사찰 탐방을 하실 계획입니까?
   ①그렇다(2번으로) ②아니다(3번으로)
2. 휴가 때 사찰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①기도(수련)하려고 ②자녀들 교육
   ③경치가 좋아서 ④조용할 것 같아 ⑤기타
3. 휴가 때 사찰을 가지 않는 이유는?
   ①숙식의 불편 ②놀이시설이 없어서
   ③다른 곳에서 즐기고 싶어 ④기타

설문 참여: 6월 6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3호 9면에 실습니다.

"북한산 환경영향평가 다시해야"

연세대, "1년 걸릴 지하 · 지표수 조사 40일에 끝내"

연세대학교 '지하수 · 토양환경연구소'(이하 토양환경연구소)는 5월 30일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서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위해 서울고속도로(주)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많은 허점이 발견됐다"며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양환경연구소는 "일반적으로 지하수와 지표수의 영향에 관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린다"며 "불과 40여일 동안 실시된 환경영향평가로는 터널공사를 위한 표준터널시방서와 터널공사설계 기준서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토양환경연구소는 △지하수 함양량 산정부분 △유역면적 및 비유량 분석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유입량 산정 △지하수 함양량과 터널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유입량 등에 대해 추가 정밀 조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불자는 부다피아 외환카드

-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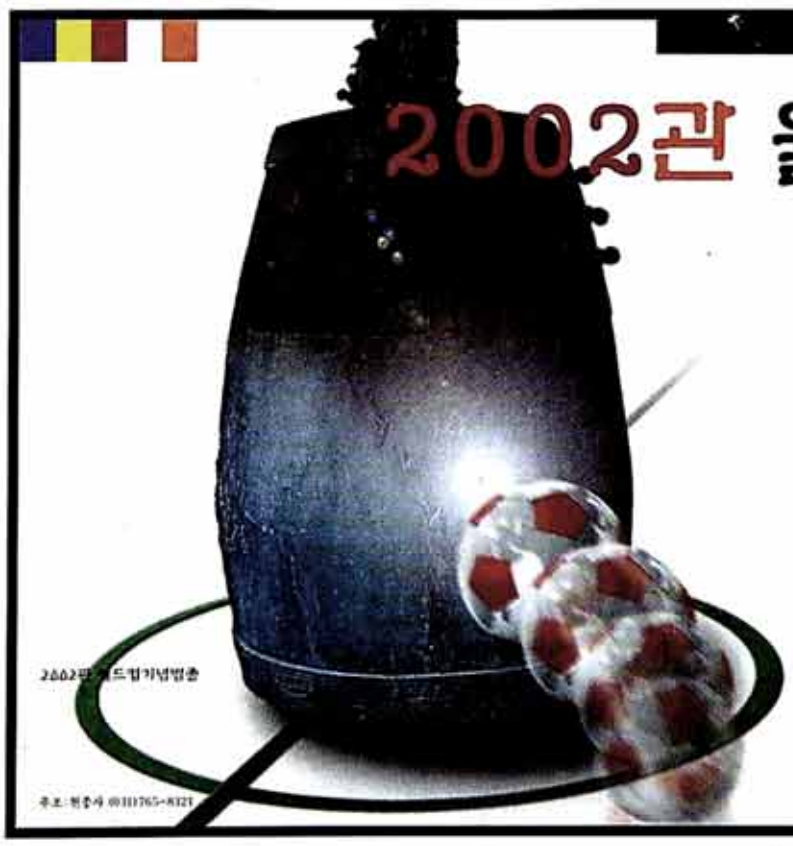
부다피아카드만의 혜택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 · 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예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몰"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 할인
- 유명백화점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 · 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02)725-1132

부처님 가피가 충만한 우리절

2002관 월드컵기념범종 타종법요식



"2002관 월드컵기념범종 타종법회에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특별히 주조된 2002관 크기의 세계 유일의 월드컵기념범종 타종법회를 봉행합니다.

월드컵 범종의 노래

장엄하게 울려라 온누리에 퍼져가라
너와나 우리모두 하나이게 하여라
시기와 질투 번뇌 온갖 갈등 놓아두고
이세상 모든 생명 기쁨있게 하여라
지혜의 원력이여 지비의 화합이여
이 종소리 들리는 곳 영원하게 하여라
법계의 모든 중생 우리절 도량에서
미래겁 다하도록 함께 성불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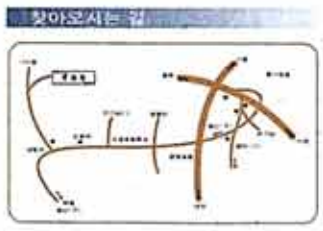
주지 통봉합장

범종의 공덕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가 자라나고, 해탈음의 울림을 유발시키고, 지옥의 고통을 하나고, 삼계를 벗어나고, 방황하고도 잠비한 해탈음을 이루고, 모든 중생들이 치료고, 도산지옥을 깨뜨리고, 유명계의 어둠을 밝히고, 삼악도의 고통을 하나고, 천국에 태어나고, 극락정토에 태어나고, 삼보를 하나는 일이 없고, 삼독이 없어지고, 삼화이 없어지고, 모든 부처님의 가호님을 이루어고, 본선으로 온누리에 두루하고, 삼보를 하나지 않고, 하이지옥의 기쁨을 입고, 덕은비 공덕이 이루어지고, 새로 원력이 확대되고, 하이난 복덕으로 장엄하고, 삼계가 참노이에 들어고, 지혜농사가 잘되고, 참된이 이치가 밝아고, 관계의 구업에 위배되지 않고, 복과 지혜를 고루 갖추고, 이놀이 없고, 신망이 없고, 무상이 없고, 이름을 떠날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등 등.

2002관 월드컵범종은 108가지 공덕이 스며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타종법회

· 장소: 관지암 우리절(www.urijeol.com)
· 일시: 2002년 6월 9일 오전 10:00
· 문의: (031)763-4674~5
· 특별법회: 법안정사 효경큰스님

주최: 현종사 (031)765-8121